

## 국가와 시민사회의 항일연합항전\* : ‘패치워크 역사 접근방법’을 통한 3·1운동의 재해석을 중심으로

김종욱 (동국대)

본문의 목적은 2019년 3·1운동 100주년을 맞이하여, 3·1운동이 일어난 원인을 분석하고 이 운동이 시민사회(백성)와 국가(고종)의 항일연합항전의 역사 속에서 가능했다는 점을 밝히려는 것이다. 3·1운동 촉발의 직접적 계기는 세계적인 민족자결주의 흐름의 국내 유입·확산이라는 환경 속에서 발생한 고종의 독시(毒弑)였다. 일제가 고종을 독시한 이유는 파리강화회의의 밀사 파견과 북경 망명을 준비했기 때문이다. 이 논거를 확인하는 차원에서 비폭력 저항운동의 기초가 되었던 대한독립의군부와 「관견」 검토, 3·1운동의 중심 네트워크가 되었던 천도교에 대한 검토, 고종의 파리강화회의의 밀사파견과 북경 망명 계획에 대한 검토, 일제에 의한 고종의 독시와 이에 대한 백성의 공분과 독립에 대한 열망을 검토했다. 이상의 검토를 통해 1919년 3·1운동은 일제에 병탄된 대한의 독립을 준비하려는 고종의 중장기적 준비로서 대한독립의군의 창설로 시작되어, 나라 잃은 백성들의 공분과 독립의 열망이 결합되었고, 이 과정에서 고종은 대한의 독립을 위해 파리강화회의의 밀사 파견과 해외망명정부 수립을 준비하다가 일제에 의해 독시되었고, 이에 공분한 백성이 일제에 맞서 비폭력 저항을 전개했으며, 그 근간은 동학의 삼백만 네트워크였다는 것이다.

[주제어] 3·1운동, 고종, 독시, 파리강화회의, 북경 망명, 대한독립의군부, 관견, 천도교

\* 이 논문은 2017년 대한민국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 (NRF-2017S1A3A2066492).

\*\* 익명의 심사자분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 심사내용 중 반영하지 못한 부분은 앞으로 연구과정에서 채워나가도록 하겠다.

## 1. 들어가며 : 3·1운동과 고종

올해는 '3·1 대한독립만세운동(이하 3·1운동)<sup>1)</sup> 100년이 되는 해이며, 동시에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이다. 상해임시정부가 탄생한 역사적 배경은 3·1운동이었으므로, 임시정부는 백성들의 3·1운동에 의해 건립된 것이다. 이 글은 3·1운동이 일어난 원인을 찾음으로써, 3·1운동이 시민사회(백성)와 국가(고종)의 항일연합항전의 역사 속에서 가능했다는 점을 밝히려는 것이다.

3·1운동이 촉발한 직접적 계기는 일제에 의한 고종황제의 독시(毒弑)와 미국 윌슨(Woodrow Wilson) 대통령의 민족자결주의 선언의 영향 때문이었다. 일제가 고종황제를 독시했던 이유는 미국 윌슨 대통령의 민족자결주의 선언에 따른 국제사회의 변화를 포착한 고종황제의 파리강화회의 밀사파견 실행과, 또 다른 차원에서 준비된 북경 망명 계획을 저지하려는 것이었다. 따라서 3·1운동은 고종의 대일항전 독립투쟁을 막으려는 일제의 독시에 맞서 백성이 비폭력투쟁<sup>2)</sup>을 전개한

- 
- 1) '3·1대한독립만세운동'이라는 명칭을 택한 이유는 첫째, 백성들이 염원한 독립의 나라는 대한이었다는 점이다. 1910년 일제는 한국을 병탄하면서 최초로 국호 '대한'에 대한 말살에 나섰으며, 대한을 조선으로 변경했다. 따라서 백성들이 회복해야 할 조국은 '대한'이었다. 둘째, 임병찬에 의한 새로운 독립운동 전략으로서 '관건'의 비폭력 방식은 1910년대 광범위하게 퍼져있었고 3·1운동의 비폭력 만세운동으로 계승되었다는 점이다. 셋째, 폐위된 고종태황제에 대해 여전히 남아있었던 백성의 '신존왕주의(新尊王主義)'와 300만 명이 넘는 천도교 네트워크의 결합을 통해 3·1운동은 거족적인 전국차원의 대일항쟁으로 전개될 수 있었다는 점이다. 이것은 1894년 '보국안민(保國安民)'의 가치를 들고 일제와 피어린 전쟁을 전개했던 동학교도와 백성들이 다시금 전국적 차원에서 대일항쟁의 중심으로 투쟁을 전개했다는 것을 뜻한다. 이와 같이 3·1운동은 대한의 독립을 비폭력 평화투쟁의 방식으로 전국 차원의 거족적인 백성 네트워크를 통해 전개한 그야말로 세계사적으로 유례를 찾아보기 힘든 항쟁이었다.
- 2) '비폭력투쟁' 방식은 임병찬의 『관건』에 적시된 정치 전략이다. 그 내용은 한 축으로는 "한국 내에서 비폭력 정치투쟁을 계속해 일제의 한국통치 비용을 폭증시켜 한국문제를 둘러싼 일본조야의 내분을 극화시키고 일제를 한국지배에 지치도록 괴롭

것이다. 3·1운동을 통해 임시정부가 탄생했고, 임시정부는 불굴의 용기와 수많은 목숨을 바쳐 카이로선언에 대한민국 독립 보장을 확인하도록 했으며, 1945년 마침내 대한민국의 광복으로 귀결되었다는 점에서 이 운동의 성격을 해석하는 것은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이 글은 '패치워크 역사접근방법'을 통해 3·1운동을 추적한다. 이 접근방법은 왜곡된 역사해석을 극복하는 방법으로 국민(백성)의 눈과 귀를 통해 공감 해석적으로 이해하려는 것이며, 비대칭적 사료 불균형을 해소함으로써 올바른 역사 해석을 시도하려는 것이다.

그리고 3·1운동 발생의 원인을 네 가지 차원에서 검토한다. 첫째, 고종 태황제와 순종의 극비황칙에 의해 진행된 '대한독립의군부' 창설과 새로운 정치 전략으로서 비폭력 저항운동이 담긴 『관견』에 대해 검토한다. 이것은 한국이 병탄된 상황 변화에 따른 정치 전략의 변경을 의미한다. 주 내용은 비폭력 저항운동 방식으로 한국 통치비용을 증가시켜 일제 내부의 분열을 노리는 것이다. 이와 함께 고종은 국외의 독립투쟁을 위한 망명 전략기지를 구축하여 우호국가와의 연대를 통해 독립을 쟁취하려고 구상·실행했다.

둘째, 동학의 후신 '천도교'의 성장과 백성의 항일정서 강화는 대일 투쟁의 중요한 자원이 되었으며, 전국 차원의 실제적인 만세운동을 가능케 한 원동력이었다는 점을 검토한다. 동학의 3대 교주이며 천도교로 개칭한 손병희는 전국의 조직을 이용해 고종황제 독살설을 확산시켰으며, 백성들의 분노를 천도교 조직과 연계하여 전국적 차원의 비폭력 항거가 가능토록 했다. 따라서 3·1운동은 고종을 중심으로 한국을

---

혀 어쩔 수 없이 한반도에서 물러날 수밖에 없도록 만드는 것"이며, 이런 전략 기조 속에서 또 다른 한 축으로 "해외 기지에서 최대한 무력을 길러 기회가 닿는 대로 국내진공투쟁을 벌여 싸워 열강의 우호적 관심을 일으키다가 열강이 일제와 개전하게 되는 결정적 시기가 오면 그때 열강 중 적절할 국가들과 동맹해 독립을 약속받고 독립전쟁을 더욱 가열 차게 벌려 광복을 쟁취하는 것"이다(황태연 2017b, 447).

독립시키겠다는 '신존왕주의'<sup>3)</sup>에 공감하는 백성, '우금치'의 죽음을 딛고 민족종교로 발전한 동학과 그 동학을 믿고 독립을 염원했던 300만 명의 천도교도가 고종의 독시를 계기로 대한의 독립을 지키려했던 '백성과 죽은 고종'의 연합항전이었다.

셋째, 외교적 측면에서 일손 대통령의 민족자결주의 선언에 고무된 고종 태황제에 의한 파리강화회의의 밀사 파견과 대일항전의 중심을 만드는 해외 망명정부 수립 계획을 막으려했던 일제에 의해 고종이 독시되었다는 점을 검토한다. 고종은 파리강화회의에 밀사를 파견하여 1882년 한미조약의 거중조정 조항을 상기시키고 한국에 대한 미국정부의 관심과 지원을 약속받으려는 계획이었다. 동시에 이회영의 제안을 받아들여 북경으로 망명을 감행하는 준비를 진행했다.

일제의 의한 고종 독시의 직접적 이유는 파리강화회의에 밀사 파견 시도와 북경망명정부 수립 계획이었다. 1907년 헤이그밀사 사건이 발생했을 때 일제는 고종을 폐위했다. 이와 유사한 이유로 파리강화회의에 밀사를 파견하려는 것은 일제에게 치명적인 것이다. 동시에 망명정부 수립은 새로운 항일투쟁의 돌파구이며, 인적·물적 지원을 통해 일제의 한국 지배를 끝낼 수 있는 기폭제가 될 수도 있다. 따라서 고종의 망명은 일제가 모든 것을 걸고 막아야 할 제1의 원칙이었다(김명섭 2008, 96). 이런 상황에서 이회영은 고종을 북경에 망명시킨 뒤 개전(開戰)조치를 발표하여 과거 고종의 거의 밑지의 효과와 비슷하게 국내 유생들과 양반 지배층 전체를 항일투쟁으로 이끌려는 계획이었으며, 동시에 이는 세계적 차원에서 일제의 부당한 한국 지배를 더욱 알

3) '신존왕주의'는 "임진·병자 양란에 대한 기억 속에서, 그리고 이양선의 출몰과 영불연합군에 의한 북경함락(1860)으로 표현된 서세동점의 문명 위기 속에서 청국·일본·서양에 대한 강한 방어 의식"과 백성과 임금의 직접교감을 가로막는 일체의 권귀(權貴)들을 배격하고 왕권의 강화를 통해 국왕 친정체제의 확립과 국정혁신, 그리고 신분타파 등의 혁명적 요구를 담고 있는 시대적 사상을 의미한다(황태연 2017a, 293).

릴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며 해외 차원의 항일 네트워크 구축의 시발점이 될 수도 있었을 것이다. 즉, “일제에 의해 ‘뇌졸중’으로 인한 병사로 위장된 고종의 죽음은 의친왕의 파리밀사사건과 고종의 북경망명이라는 이 두 방향의 움직임과 불가분적 관계”에 있었던 것이다(황태연 2017b, 497-499).

넷째, 백성들의 자유롭고 평등한 시대를 만들려는 ‘신존왕주의’의 공감대 속에서 발생한 고종의 죽음이 일제의 독살이었다는 백성의 ‘의심 어린 확신’이 직접적인 3·1운동의 계기였다는 점을 검토한다. 고종이 일제에 의해 독살되었다는 것을 당시 백성들이 사실로 믿고 있었으며, 그 공분은 하늘을 찌를 듯 했다.

1919년 3·1운동은 일제에 병탄된 대한의 독립을 준비하려는 고종과 순종의 중장기적 준비로서 대한독립의군의 창설 준비로 시작되어, 나라 잃은 백성들의 공분과 독립의 열망이 결합되었으며, 동학농민전쟁의 주역이었던 동학의 삼백만 네트워크를 근간으로 진행되었다. 고종은 대한의 독립을 위해 파리강화회의 밀사 파견과 해외망명정부 수립을 준비하다가 일제에 의해 독시되었고, 이에 공분한 백성은 일제에 맞서 대한독립을 부르짖으며 고종의 죽음을 슬퍼했다. 그렇게 진행된 비폭력평화 독립만세운동은 고종과 순종이 지시하여 임병찬이 작성한 전략·전술로써 『관견』의 방략이 현실에서 적용된 것이기도 하다.

## 2. ‘패치워크 역사접근방법’과 3·1운동

3·1운동이 전개된 원인과 그 과정에 대한 연구는 ‘패치워크 역사접근방법’<sup>4)</sup>을 통해 해석할 것이다. 이 방법은 특정 시점의 중대한 역사 과정을 이해하는데 있어 사료적 비대칭성을 극복하는 ‘공감적 해석’방

법을 패치워크(patchwork)하며, '민족사관', '계급사관', '실증사관', '민중사관' 등 기존 역사접근법의 한계를 극복하려는 목적으로 제시된 '국민사관'<sup>5)</sup>도 동시에 패치워크 하는 이중적 과정이라 할 수 있다.

백성의 신음소리와 비명소리, 동학농민·의병·해산국군의 아우성·분노·함성, 이들의 전투와 투쟁 등은 언어화되지 않았고, 민중적 혁명철학(개벽사상·일군만민신화·신존왕주의)은 또렷하게 언명되거나 이론화되지 않았으며, 고종과 400-500명에 달한 별입시들 간의 수많은 비밀보고와 비밀지령은 기록조차 되지 않았고, 고종이 무수히 발령한 밀명과 밀지, 그리고 소수의 의병전투 등은 문자로 기록되었으나 식민시기를 통과하면서 민가의 곳간바닥과 일제의 창고 속에서 적잖이 훼손되거나 망실되어버렸다. 또 친일괴뢰와 일제잡ай들의 불궤음도(不軌陰圖)와 흉계, 극비음모와 밀정행각 등은 기록은커녕 아예 흔적도 남기지 않은 경우가 많고 공개·발설된 적도 없으며, 비밀리에 기록된 적이 있더라도 식민지시대를 통과하면서 거의 다 일제에 의해 위조되거나 인멸되었다. 이런 식으로 사료 더미는 지극히 비대칭적으로 뺄어져 있다(황태연 2017a, 71-72).

사료의 비대칭성과 역사서술의 왜곡으로 발생한 잘못된 이해의 한계를 극복하지 않고 당대 역사를 사실에 부합하게 해석하기 어렵다.

- 
- 4) 시간의 흐름과 행위의 누적 속에서 역사가 기술된다면, 그것은 당대의 문화·문명의 어느 조각을 해석하는 작업이라 할 수 있다. 문화·문명이 생산, 행동, 사유, 풍류, 예술, 생사(生死)의 양식(styles)·방법(methods)·기술(technics)·방식(fashions)을 표현하는 것이라며, 역사에 대한 해석은 문화·문명의 어느 측면에 대한 것이다. 문명이 다양한 문화·문명 부분들의 패치워크를 통해 재창조되는 과정을 추적하는 것도 역시 패치워크의 방식으로 해석될 수 있을 것이다(황태연 2016, 33-74).
- 5) '국민사관'은 국민과 정부(국왕)의 관계를 중심에 놓고, 양자의 협력과 갈등을 역사 기술의 핵심으로 삼고, 국민의 독자적 성장과 정부의 능동적·수동적 동태, 그리고 양자의 상관적 변화발전에 관심의 초점을 맞추는 것이다. 그 핵심에는 '민심'으로서의 '공감대', '백성의 눈'으로서의 공감장을 중시하며, 따라서 공감적 해석을 통해 사관의 한계를 최소화하려는 접근이며 당대를 더욱 있는 그대로 이해하려는 접근이다. 국민사관이 완벽한 것은 아니나, 다른 사관에 비해 오류가 더 적을 것이기 때문이다. 그 이유는 국민이 후진적이어서 오류를 범하더라도 국민은, 그리고 국민만이 이 오류에 대해 역사적 책임을 질 수 있는 '자격'을 가진 유일한 책임주체이기 때문이다(황태연 2017a, 78-82).

항일전쟁에 목숨을 투신한 의로운 백성들은 자신의 역사를 서술할 시간도 없었다. 목숨의 경각을 다투면서 남긴 사료들은 유실·훼손·망실되어버린 경우가 대부분이다. 반면 일제에 부역한 자들은 자신의 기록을 미화하고 잘못된 삭제하는 방식으로 역사를 기술하기 일쑤였다. 이 비대칭적 사료더미 속에서 당대의 역사를 사료실증주의로 해석할 수 없다는 것은 자명하다.

가치중립적 실증사관·민족사관·계급사관·민중사관 등은 우리 역사를 담아내는데 일정한 한계를 드러냈다. 따라서 “백성 또는 국민의 기쁨과 고통, 즐거움과 괴로움, 도덕감정, 도덕감각(시비지심), 도덕적 비난 등의 제반 감정에 공감하는 관점에서 사료와 역사적 행동을 해독”(황태연 2017a, 77)하는 공감적 해석학과 국가의 자치와 참정의 중심이며 역사의 주체인 국민을 중심으로 하는 국민사관을 통해 사료 실증주의나 국가 영역의 전체가 아닌 부분을 대변하는 민족·계급·민중사관의 한계를 극복하려는 것이다. 역사적 오류를 책임질 수 있는 것도 자치와 참정의 주체인 국민이라는 측면에서 국민사관이 완벽할 수 없을지언정 좀 더 포괄적이며 오류로 발생한 문제를 책임질 수 있다. 공감적 해석은 당대의 국민적 공감대와 유사한 사료를 중시하며, 역으로 이와 상치(相馳)되는 사료는 비판적 관점으로 접근한다.

그 이유는 언어 중심적인 텍스트 분석만으로는 당대의 상황을 정확히 해석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텍스트의 언표에 담긴 감정적 의미연관, 화자의 표정과 대화상황의 감정적 분위기와 정서, 텍스트의 필자와 독자(화자와 청자)를 포괄하는 사회적·전통적·역사적 공감대, 그 시대의 공감감정과 의도를 무시하고, 말과 문장의 어의에 매여 변화무쌍한 역사적 어의 변질, 필자나 화자의 수사적 설득전술과 언변술, 허언과 실언, 과장과 축소, 화행적 오류와 오해, 왜곡과 작화, 화자와 청자의 어줍지 않은 이해 등”(황태연 2017a, 65-66)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공감적 해석을 통해 텍스트 중심 해석의 한계를 극복해야 한다.

예를 들면, 왜곡된 역사에 의해 나라를 망하게 한 왕으로 고종을 규정했으나, 고종의 지속적인 거의 밀지, 망명계획, 항일외교 정책 등을 면밀히 검토하면 다른 역사적 판단을 할 수밖에 없다. 1919년 3·1운동의 외침이 '대한독립 만세'였다는 것은 찾아야 할 나라가 대한이었음을 의미한다. 3·1운동이 고종의 독시에 따른 장례일 직전에 벌어졌다는 점에서 일제에 대한 백성의 공분으로 이해할 수 있다. 이처럼 당대 백성의 공감대, 민심을 공감적으로 이해하는 것을 중심으로 사료 해석이 전개되어야 한다. 이것은 공감적 해석학과 국민사관의 패치워크를 통해 가능한 것이며, 동시에 역사과정에서 패치워크를 끊임없이 시도하는 행위자들과 공감하는 과정이 될 것이다. 따라서 이 글은 고종과 3·1운동의 연관성을 밝히면서 동시에 '패치워크 역사접근방법'의 가능성도 실험하려는 것이다.

### 3. 3·1운동 발생의 원인: 백성과 고종의 연합항전

병탄 이후에도 고종태황제의 독립을 위한 항일운동은 계속되었다. 이 당시 독립투쟁은 두 갈래 길밖에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하나는 한국 내에서 비폭력적 정치투쟁을 계속해 일제의 한국 통치비용을 폭증시켜 한국문제를 둘러싼 일본 내의 내분을 극화시켜 한국지배에 지치도록 괴롭혀 어쩔 수 없이 한반도에서 물러날 수밖에 없도록 만드는 것이고, 또 다른 길은 해외 기지에서 최대한 무력을 길러 기회가 닿는 대로 국내진공투쟁을 벌여 싸우다가 열강이 일제와 개전하게 되는 결정적 시기가 오면 그때 열강 중 적절한 국가들과 손잡고 독립을 약속

받고 싸워 독립을 쟁취하는 것이다(황태연 2017b, 447).

### 1) 고종·순종의 밀지와 임병찬의 관견(管見)

고종과 순종은 '대한독립의군부(이하 독립의군부)'를 재건하는 항일 운동체 조직 건설에 착수했다. 1912년 9월 서울에서 곽한일(郭漢一)·김재순(金在珣)·윤돈구·이명상(李明翔)·이승욱(李承旭)·이인순(李寅淳)·이정노(李鼎魯)·이칙(李弼)·전용규(田鎔圭) 등이 조직했고, 1912년 9월 28일(양력 11월 6일)과 12월(양력 1913년 2월) 극비황칙이 임병찬(林炳贊, 1851~1916)에게 전달된 것으로 보인다. 곽한일과 이칙은 최익현의 문인이자 민종식(閔宗植)의 홍주의병에 참여한 재야유생이었고, 이정노·이인순·전용규·이명상·김재순·윤돈구·이승욱 등은 대한제국의 전직 관료출신들이다(이성우 2014, 168-170). 즉, 독립의군부는 고종과 순종의 황칙에 의해 재야유생과 대한제국 전직 관료들의 연합을 통해 만들어진 조직이다.

임병찬은 1913년 11월 「관견(管見)」<sup>6)</sup>을 작성하여 고종태황제에게 상주했고, 이를 재가 받았다. 뒤이어 1914년 고종은 칙지를 내려 임병찬을 독립의군부 육군부장 전라남북도순무총장 겸 사령총장으로 삼았다. 임병찬의 「관견」에 의한 정치노선은 1919년 3·1운동으로 이어졌다. 이 정치노선은 '비폭력적 민족총결기 정치투쟁론'이라 할 수 있는데, 이런 비폭력 노선은 세계사적으로 유례가 없는 투쟁전략이었다. 1919년 3월 1일 전국에서 대한독립만세를 외치며 비폭력 독립운동을 전개한 그 투쟁방식이 바로 「관견」에 들어있던 것이다. 더욱 주

6) 「관견」은 ① 論천하대세 ② 論시국형편 ③ 지기(知己) ④ 지피(知彼) ⑤ 천시(天時) ⑥ 제승(制勝) ⑦ 정산(定筭) ⑧ 요인(料人) ⑨ 요사(料事) ⑩ 비어(備禦) ⑪ 부하별록(附下別錄, 운영규칙) 등 11편으로 구성되었다(임병찬 1986, 111-124).

목되는 것은 독립의군부 조직 핵심들은 이미 백성들에게 독립사상을 고취하여 독립을 선언한다는 구상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으로<sup>7)</sup>, 이런 구상은 3·1운동으로 현실화되었다.

임병찬은 인·지덕의 힘으로 무력을 이기는 ‘이문승무(以文勝武)’, ‘이문제무(以文制武)’의 비폭력 정치투쟁을 ‘제승지술(制勝之術)’로 제안했다. 그는 일제의 막강한 군사력에 대항하여 우리가 똑같이 무력으로 대항하면 백전백패이니, 우리는 지혜로써 일제를 물리쳐야 한다고 생각했다(임병찬 1986, 117-118).<sup>8)</sup> 즉, 1919년 3월 1일 전국적 차원에서 지속적으로 대한독립만세를 외쳤던 비폭력독립운동의 사실상의 기초가 「관견」이었으며, 작성 완료된 1913년 11월부터 서서히 전국으로 투쟁 전략·전술이 퍼져갔다.

경성에 독립의군부 중앙 순무총장(巡撫總長)을 두고, 각 도에는 도 순무총장, 각 군에는 군수, 면에는 향장(鄕長)을 배치하여 내각 총리 대신과 총독 이하 조선 내 대소 관헌에게 상시에 국권반환을 요구하는 서면을 보내어, 이로써 일본 관헌에게 조선통치의 어려움을 알게 한다. 그리고 외국에 대해서는 조선인이 일본에 열복(悅服, 기쁜 마음으로 복종함)하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주며 또 조선인에게 국권회복의 여론을 일으키기 위해 관견(管見, 좁은 식견이라는 뜻)이라는 서면을 휴대하고 1914년 4월부터 5월까지 동지를 모집하던 중인 그들을 발견하여 검거한 것이다(안동독립운동기념관 기획 2010, 335).<sup>9)</sup>

위 인용문처럼 일제 경찰의 자료에 의해서도 「관견」이 비폭력투

7) 이 내용은 광한일·전용규·이정노·김재순 판결문(1913년 8월 13일[양] 경성지방법원)에 나와 있다(이성우 2018, 171).

8) 독립의군부의 전략은 비폭력 평화노선이지만 거병(擧兵) 방식도 부차적이지만 준비했던 것으로 보인다. 이인순, 이척 등이 1913년 봄 ‘독립의군’을 일으키려 했다는 점, 임병찬의 명령에 의해 김재구가 청년 및 해산병정 등을 중심으로 부원을 모집했다는 점, 임병찬이 ‘양병(養兵)’도 중요하게 생각했다는 점 등에서 알 수 있다(이성우 2018, 181-183).

9) 1934년 조선총독부 경상북도경찰부에서 발행한 『高等警察要史』를 역주한 것이다.

쟁을 통해 국권회복의 의지를 그리고 주변 열국(列國)에게 신념을 보여주는 방법이었다. 또한 1914년부터 독립의군부 구성을 위해 이 자료를 서면으로 휴대하고 만나는 사람들에게 전달하거나 내용을 전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특히 임병찬 스스로 「관견」에 대중이 보기 편하도록 국문을 첨가해서 국한문혼용으로 작성했다고 밝히고 있다(임병찬 1986, 122). 임병찬은 이명상, 이인순 등과 협의하여 각도 대표를 설정하였는데, 그 규모는 총 대표 27명과 각도와 각 군 대표 302명, 합쳐서 329명에 이르렀으며, 1914년 5월 3일 함경남도 관찰사 겸 순무총장에도 임명되어 독립의군부의 조직을 북한지방까지 확대하려고 노력했다. 그러나 1914년 5월 김창식이 일경(日警)에게 체포되어 고문 끝에 독립의군부의 조직을 자백함으로써 국권회복운동은 중단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관견」은 “일제의 무단통치에 맞선 비폭력 저항으로서 1919년 3·1운동의 선구적인 형태”로 해석되는 것이다(김종수 2014, 151-152).

독립의군부를 조직한 이들은 “①(인재를 모아)단체조직→②(일본정부에)서면상신·(鮮人에게 연설 등으로) 독립사상고취→③(시기를 보아)독립선언→④(列國과 협조해) 독립달성(이성우 2014, 171)”이라는 전략을 추진했다. 이것은 순종이 1912년 내린 칙령의 “안으로 의용지사(義勇志士)들을 규합하고 밖으로 문명열강들을 붙잡아서 창생을 구제하고 독립을 만회(임병찬 1986, 285)”하라는 방침과 임병찬이 작성하고 고종이 승인한 「관견」에 의한 ‘비폭력 평화투쟁’을 결합하고, 독립선언과 백성들의 독립 염원을 열국과 협조해서 독립을 달성하는 식민지시대의 새로운 독립전략이 만들어졌던 것이다.

이런 중대한 의미에도 불구하고 「관견」을 폄훼하는 해석이 나오는데, 그 내용은 투쟁방식이 “지극히 관념적이고 단순한 복벽운동”(강길원 2005, 59)이며, “장서투서는 양반 유생층의 특권의식, 계급의식,

신분의식의 산물로서...장서투쟁의 궁극적인 목표는 왕조체제의 부활이었고 더 구체적으로는 고종의 복위 운동이었다. 뿐만 아니라 장서투서는 한낱한시에 이루어지면 꽤 시끌벅적할 것 같아도 효과를 거두려면 신채호가 지적하고 있듯이 적측인 일제의 배려가 절대적이었다. 따라서 장서투서는 민족해방의 주체세력인 민중과 연합할 수 없는 상태에서 제기된 지배층만의 반일운동”(李相燦 1990, 824)이라고 폄훼한다.

그러나 이러한 해석은 “운동여력으로 마침내 대한민국 상해임시정부를 탄생시키는 3·1만세운동과 같은 국내 비폭력적·거국적 총궐기투쟁의 중요성을 전혀 이해하지 못한 것일 뿐만 아니라 ‘대한독립의군부’ 창건 자체의 역사적 의의를 전혀 이해하지 못한”(황태연 2017b, 465-467) 것이다. 또한 남아있었던 독립의군부 인사들은 1915년 독립의군부 사건, 1916년 의병봉기 추진, 1918년 민단조합 참여를 통한 활동, 3·1운동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독립운동을 이어갔다는 사실(이성우 2018, 188-189)을 몰랐기에 하는 비판이었을 것이다.

## 2) 천도교의 성장과 백성의 항일정서

일제 하 한국 백성들의 삶은 수탈과 압박의 연속이었다. 일제의 총독부는 병탄 이후 5년 동안 일제의 식산흥업·개발투자 없이 경제적 민족차별정책을 통해 한국경제의 약탈과 예속화의 기반을 만들었을 뿐이었다. 1909년 일본내각에서 의결된 「대한시설대강」의 5개 실천 방침은 한국에 대한 개발투자 규정은 없고 한국철도의 강탈, 왜인의 한국이민 촉진, 한국경제의 대일 예속화 강화만을 규정하면서 투자 없는 한국 수탈만 강화했다(황태연 2018, 928-929). 그러던 중 1917년부터 쌀 가격이 급격하게 올랐고, 이 상황은 지속되었다. 1917년 5월 “쌀값이 너무 올라서 못 살겠소”(「매일신보」 1917.05.29.)라는 백성들의

원성이 자자했고, 삶은 도탄(塗炭) 그 자체였다. 1918년에는 쌀 가격 급등으로 구제자금을 지출해야 할 지경이었다(「매일신보」 1918.08.15.). 동시에 물가도 앙등했다. 당시 상황은 “일용생활에 안이 쓸 수 업는 알들이 살들이 모조리 깡그리 야속히계도 올라서 정말 무서운 세상이 되얏다”라고 표현하고 있다(「매일신보」 1917.07.19.). 이런 상황에 맞서 농민과 노동자들은 조선총독부에 다양한 방식으로 저항을 지속했다(이정은 1990, 18-24). 여기에 1918년부터 전 세계를 휩쓴 유행성 독감이 한국에도 들이닥쳤다. 한국에서는 7,422,113명의 환자가 발생하여 139,128명이 사망했다는 기사도 있다(「매일신보」 1919.01.30.). 이처럼 식민지 백성의 삶은 더욱 비참해져가고 있었다.

3·1운동 전개과정에서 종교계는 중요한 역할을 했는데, 그 중에서도 의암 손병희(1861~1922)를 중심으로 하는 천도교가 주동이 되어 기독교, 불교계 등과의 개별적 연합제휴를 추진했다. 이종일의 『목암비망록』에 의하면 1910년부터 거국적 민중운동을 계획했으며, 1912년을 전후로 국권회복운동을 위해 범국민적 신생활과 민족문화수호운동이라는 양대 국민운동 전개를 계획했고, 1914년 제1차 세계대전이 발발하자 민족구국투쟁 전개를 준비했으며, 1916년에는 천도교 서울교구장인 장효근과 민중운동을 협의하였다(이현희 2009, 292-293). 그러나 이런 흐름은 현실로 실행되지는 못했다.

『목암비망록』(1912.02.24.)에 의하면 손병희는 “나의 민족운동 방법은 동학군의 무장행동이 일본에 의해 참패당했기 때문에 비폭력적인 항쟁이 이 같은 식민통치 하에서는 한 가지 방법”이라 했다(정혜정 2018, 245). 이는 임병찬의 「관견」에 나온 국제정세와 우리의 능력, 일본의 상황 등을 고려한 비폭력 노선과 유사하다. 손병희 또한 식민통치라는 상황에서 무장행동보다는 비폭력 저항 전술을 택한 것이다.

손병희는 1918년 5월 5일 천도교의 중진들을 자신의 집으로 초치하

여 독립운동의 방향으로 대중화, 일원화, 비폭력의 원칙에 입각해야 한다는 문제를 논의·결정했다. 여기서 대중화는 각계각층의 민중을 동원하는 것이고, 일원화는 여러 계층을 하나로 대동 통합하는 것이며, 비폭력은 갑오농민전쟁의 경험에 따라 희생을 줄이기 위한 것이라 한다(정혜정 2018, 245-246). 이런 흐름 속에서 3·1운동 주도세력들은 월슨의 민족자결주의 제기를 한국 독립의 좋은 환경으로 파악하고 실제 행동에 착수한 것으로 보인다. 일제에 투옥된 민족대표들의 신문조서에 그 내용이 언급된 것에서 알 수 있는데, 손병희는 신문조서(1919.04.11.)에서 “파리강화회의에서 제창된 미국 대통령의 민족자결 문제에 의하여 민심이 움직이고 있는 것을 간취”했다고 말했고, 최린도 신문조서(1919.04.07.)에서 손병희의 민족자결 의사 발표 필요성에 찬동했다고 말했으며, 권동진도 신문조서(1919.04.08.)에서 월슨의 민족자결 조항에 한국도 포함된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sup>10)</sup> 이러던 차에 고종의 서거라는 상황에 직면하여 “천도교인들의 민족운동은 고종 독살의 진상규명 범국민대회 소집을 알리는 의암 명의의 격고 국민의 글이 제시가 되어 전국의 문상객 집결을 계기로 3·1혁명이란 거국적인 큰 물결의 중심을 형성”했다(이현희 1979).

3·1운동 당일 인쇄된 『조선독립신문』의 발행을 주도한 인물은 보성사 사장과 천도교회월보과 과장을 맡고 있던 이종일이었고, 대체로 천도교계 인사들이 중심이었다.

이종일은 2월 20일부터 보성사에서 독립선언문을 인쇄하기 시작했다. 보성사 총무인 장효근(張孝根)과 김홍규(金弘奎), 신영구 등과 함께...25일까지 1차로 2만 5천장을 인쇄 완료하고 인쇄된 것을 천도

10) 국사편찬위원회 편, 『韓民族獨立運動史資料集』 11권,三一運動 I, 三·一 獨立宣言 關聯者 訊問調書(京城地方法院)(國漢文), 국사편찬위원회 한국사데이터베이스

교 본부로 운반했고 이어서 27일 밤까지는 1만장을 더 인쇄해야 했다. ...곡절 끝에 인쇄된 독립선언서는 각계의 동지 7, 8명에게 2천 장 또는 3천장 씩 돌렸다(임형진 2009, 177-178).

또한 천도교의 주도성을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손병희의 위상이었다. 독립될 나라의 임시정부는 대한민간정부, 조선민국임시정부, 대한민국의회(노령정부), 신한민국정부, 한성임시정부 등이었는데, 이 중 대한민간정부, 대한국민의회, 조선민국임시정부 3개 안은 손병희를 수반으로 하고 있다(정혜정 2018, 247). 이런 상황이 가능했던 이유는 당시 교도 수가 300만 명(교단 내부의 주장에 의하면 600만 명)에 달했던 천도교(동학)가 민족대표의 수적 비중<sup>11)</sup>에서도 주도적이었고, 조직망과 자금 등 전국적 운동 확산에서 주도성을 가졌기 때문이었다.<sup>12)</sup>

### 3) 파리강화회의와 북경망명계획

고종은 외교적인 노력과 함께 망명정부 구상을 계획·실천했다. 미국 윌슨 대통령은 1918년 1월 8일 미국의회에 연두교서를 제출했는데, 이는 「14항」이라는 문건으로 불리며 세계적 차원의 민족자결주의 열풍을 일으켰다. 따라서 이 내용이 보도되자 아시아지역 모든 식민지 민족들은 이 민족자결원칙을 독립의 기초를 삼았으며, 역으로 일본 등 식민당국에게는 초유의 위기 상황을 의미했다. 이런 흐름의 대응책으

11) 「기미독립선언서」를 발표한 33인의 3·1운동 민족대표들 중에서 동학교도는 16인, 기독교도는 15인, 불교도는 2인이었다. 이들 민족대표는 3인의 변절자(최린, 정춘수, 박희도)를 제외하고 일제의 고문 속에 죽음을 맞았거나 광복의 날까지 지조를 지켜 민족혼을 사수했다(황태연 2017b, 535).

12) 천도교는 당시 37개의 대교구 아래 북간도를 포함하여 지방에 194개의 교구를 거느리고 있었고, 1919년 3·1운동 직전에 신도들이 낸 성미를 통해 조성한 자금이 100만 원의 거금이었으며, 이 자금은 기독교 쪽에도 거사자금으로 제공되었다(박맹수 2012, 509, 734).

로 마련된 것이 영친왕과 마사코와의 정식 혼인이었다. 이는 일제와 한국의 두 왕가가 혼인을 맺는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만큼 민족 자결주의가 필요 없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려 했던 것이다.

이런 상황을 맞이하여 고종은 독립을 위한 은밀한 방책을 시도한다. 첫째는 파리강화회의에 참석예정이었던 윌슨 미국 대통령에게 밀사로 하란사(河蘭史) 이화학당 교수와 의친왕(이강)을 보내려는 계획이었다. 고종은 밀사 파견을 통해 “1882년 한미조약의 거중조정 조항을 상기시키고 1905년 을사늑약과 1910년 한국병탄 시 방관한 미국의 위법적 대한정책을 엄중 규탄하고 향후 한국에 대한 미국정부의 관심과 지원을 약속받으려는 계획이었다(황태연 2017b, 490).” 둘째는 이회영이 제안한 북경 망명을 수용하여 결행을 준비하는 것이었다.

고종의 판단은 1918년 말 양국 대표에 의해 서명된 한미수호조약 원문을 찾아 의친왕에게 휴대케 해서 파리로 파견하여 윌슨에게 이 조약의 거중조정 조항을 제시하고 미국의 책임을 지적하며, 미국에게 한국의 독립에 힘써줄 것을 요청하려는 것이었다. 상해한인거류민단 애국부인회장이었던 이화숙은 하란사의 죽음에 대한 추도회 보고에서 의친왕은 하란사에게 먼저 북경으로 나가 자신을 기다리며 대기하라고 은밀히 부탁했고, 따라서 의친왕은 고종으로부터 친서 신임장을 소지했을 것으로 추정된다(황태연 2017b, 492).

문제는 이런 계획을 조선총독부가 간파했다는 것이다. 여기에 더해 고종의 북경망명 계획은 일제를 더욱 당혹스럽게 만들었다. 이 계획은 이회영이 고종에게 제안했고, 고종은 이 계획을 윤택했다. 이회영이 망명을 계획한 것은 고종을 “망명의 구심으로 삼고, 대외적으로 정부로서 인정받아 거국적으로 독립운동을 전개하려는 복안”이었다(김삼웅 2014, 124). 동시에 고종이 중국으로 망명해 항일 투쟁에 나선다면 일제의 한국 지배는 커다란 위기를 맞을 것이 자명했다(임기선 2015,

32). 즉, 이회영은 “고종폐하께서 중국으로 어출(御出)하시어 파리강화회의에 한국독립의 성명을 내고 광복운동에 친히 임하시는 방안을 깊이 생각하고”(이관직 1985, 169) 고종을 북경에 망명시킨 뒤 개진조치를 발표하도록 해 국내유생들과 양반 지배층 전체를 항일투쟁으로 이끌려고 계획했던 것이다.

그러나 슬픈 역사는 지속되었다. 하란사는 유행성 감기로 45세에 사망하면서 계획이 무산되었다. 이회영은 고종황제가 주필(駐蹕)할 행궁(行宮)을 빌려 수리하고, 망명을 차근차근 준비했으나 이 또한 일제에 의한 고종의 독시(毒緘)로 무산되었다. 파리강화회의 특사파견과 북경 망명계획은 일제가 고종을 독살하게 된 가장 중요한 원인이었다. “고종의 망명으로 북경망명정부가 출범할 경우 일어날 국내외적 대(大)파장을 생각할 때 이것은 파리밀사 사건보다 더 큰 파장을 몰고 오면서 총독부의 존립기반을 없애버릴 메가톤급”(황태연 2017b, 498-499) 사건이 될 것이었다. 따라서 고종을 독살함으로써 그 근원을 없애버리는 결정을 한 것으로 판단된다.

1907년 고종은 헤이그에 밀사를 파견하면서 특사였던 이위종과 이상설에게 “내가 살해당해도 나를 위해서 아무런 신경을 쓰지 마라. 너희들은 특명을 다하라. 대한제국의 독립주권을 찾아라”라고 주문했다. 이것은 헤이그 특사단이 로이터통신과 인터뷰를 하면서 기사화되었다 (「Algemeine Zeitung」 25. Juli 1907. 「연합뉴스」 2019.03.14.). 헤이그 밀사를 파견하면서 자신이 죽을 수 있다고 판단했던 고종이 파리강화회의에 밀사를 보내면서 죽음을 각오했을 것이라는 것은 쉽게 짐작할 수 있다.

#### 4. 고종의 독시와 백성의 공분, 그리고 3·1운동

고종 서거의 원인에 대한 분석 논문은 많지 않은데, 그래도 독살설이 사실이라는 주장(이태진 2009; 황태연 2017b)과 그렇지 않다는 주장(李昇燁 2009; 윤소영 2011)으로 대별된다. 최근 윤소영(2019)은 다시 한 번 독살설이 근거가 없다고 주장하는 논문을 발표했으나<sup>13)</sup>, 당시 상황과 다양한 과정을 종합하면 고종은 일제에 의해 독시당한 것이 분명하다.<sup>14)</sup>

오호 통제라, 우리 2천만 동포여. 우리 대행 태상황제 폐하 붕어의 원인을 아는가 모르는가. ...윤덕영(尹德榮)·한상학(韓相鶴) 등 2적으로 시선(侍膳)을 시키고 다시 두 궁녀로 하여금 밤에 식혜에 독약을 타게 하다. 옥체는...즉석에서 운명을 하시다. ...그리고 두 궁녀까지 남은 약을 마시게 해서 참살, 입을 봉했다. ...또 미국 대통령 윌슨 씨는 13개조의 성명을 발 한 이래 민족자결의 소리는 일세를 진동시켜

13) 윤소영 논문의 핵심은 일본 관헌자료와 신문, 총독부 기관지를 근거로, 고종은 1919년 1월 21일 오전 6시 30분 뇌일혈에 의해 서거했다는 것이다. 그러나 윤소영은 2011년 자신의 논문 발표 이후 학계에서 제기된 반론내용에 대해 이번 논문에 전혀 반영하지 않았다. 따라서 의문은 여전히 해소되지 못한 것이다. 우선, 고종 서거 시점이 지체된 이유와 관련된다. 그는 이은 왕세자의 결혼식을 앞두고 있어서 혼례 연기문제에 대해 명확한 방침이 세워지지 않아 발표시기가 늦어졌다는 일본의 『大阪毎日新聞』 보도를 근거로 제시했다. 그런데 혼례 연기만 언급할 뿐 당시 고종이 준비했던 파리밀사파견 계획과 북경망명정부 수립 계획은 언급되지 않고 있다. 만약 일본이 이 사실을 알았다면 고종을 독살할 충분한 사유가 될 것이다. 동시에 황태연(2017b)이 제기한 사망시간 조작을 통해 독살을 뇌일혈로 둔갑시키려했다는 다양한 사료적 근거와 해석에 대해 전혀 반론하지 않았다. 둘째, 고종의 사인과 시신 변형에 대한 논란이다. 윤소영은 2011년 논지를 그대로 유지하고 있는데, 이 역시 황태연에 의해 제기된 각종 의혹에 대한 반론이 없다. 그것은 ① 고종 서거 당시 정황에 대한 일본의 의도적 왜곡과 증거 인멸, ② 고종 시신에 대한 윤소영의 설명이 법의학적으로 전혀 수용할 수 없다는 반론, ③ 일본 관헌자료, 신문, 총독부 기관지의 자료와 보도는 사실로 수용하면서 친일파 윤치호, 민영달, 한진창(韓鎭昌)의 독살설 내용은 전혀 수용하지 않고 있다는 반론 등이다. 적어도 이런 반론에 대한 윤소영의 반론을 통해 고종의 독살설에 대한 학계의 논쟁이 시급히 전개되어야 할 것이다.

14) 일제에 의한 고종의 독시에 대한 구체적인 논증은 황태연 2017b, 500-529, 독살설을 확증한 것은 아니지만 높은 개연성을 언급한 논문은 서동일 2018 참조.

폴란드·아일랜드·체코 등 13국은 독립을 했다. 우리 한민족은 어찌 이 기회를 잃을 것인가. 이로써 재외 동포는 이를 기회삼아서 국권 회복을 질성(疾聲) 읊소하고 있다.…거국일치 굳게 결속해서 일어서면 이미 잃은 국권은 회복할 수 있고 이미 망한 민족은 구할 수 있고 선제 선후(先帝先後) 양 폐하의 대수 극원(大讎極怨)도 다 씻을 수 있고 설욕할 수 있다. 쫓기하라. 우리 2천만 동포여!<sup>15)</sup>

작성주체 미상의 이 격문은 3·1운동이 고종 서거와 민족자결주의 흐름이 결합되어 시작되었다는 것을 알려준다. 고종 서거의 원인이 독살이며, 민족자결의 세계적 흐름을 놓치지 말고, 나라의 독립과 고종의 원수를 갚기 위해 쫓기하자는 것이었다. 이런 내용이 담긴 신문과 격문은 3·1운동 당시에 일반적이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연도 미상의 경고문의 내용은 “저 일본은 우리의 국모와 국부 곧 황후와 황제를 모두 암살한 자가 아니냐?”라는 것이고, 이와 유사한 내용의 충고문, 경고문이 살포되었다. 「조선독립신문」 제2호(1919.03.20.)의 “우리 태황제를 시해한 역적. 이번 세계강화회의에 보낼 ‘조선이 스스로 원하여 합방하였다’는 내용의 문서에 이완용, 윤덕영, 조중응 등 일곱 명의 역적들이 도장을 찍고 나서 태황제께도 조인할 것을 강박하였지만 태황제께서 크게 화를 내시며 윤허하지 않으시므로 그날 밤에 독살하였다고 한다”는 내용, 「국민회보」(1919.03.02.)의 “우리 태상황제 폐하께서 돌아가신 원인”을 “가장 큰 역적인 이완용은 윤덕영과 한상학을 시켜 시중을 들던 궁녀 두 사람을 핍박하여 한밤중에 식혜에 독약을 탄 후 드리게 하였다.”는 내용에서도 알 수 있다. 또한 이승만을 집정관 총재로 하는 국민대회 선포문(1919년 4월)의 마지막 부분은 “돌아가신 황제와 돌아가신 황후 두 폐하의 원수를 갚기 위해 일어나자!”였다.<sup>16)</sup>

15) 이 인용문은 1919년 3월 1일 아침에 경성시내 한국인이 살고 있는 거주지에 살포되었다는 격문이다(조선헌병대·조선총독부 경무총감부 1973, 860).

16) 이상의 내용은 국사편찬위원회 삼일운동 데이터베이스 격문·선언서에서 확인할 수

또한 곤도 이왕직사무관도 덕수궁 전하(고종-인용자)께서는 매우 건강하셨다가 갑자기 서거했다면서 믿어지지 않는다고 했다(곤도 시로 스케 2007, 253). 아래의 인용문은 고종의 독살을 간접적으로 증언해주는 내용들이다.

고종께서 야중에 밤참을 드시는 기회를 이용해 궁인을 매수, 극비리에 식혜에다 극한 독약을 타서 잡수시게 했으니 고종이 전신이 파열 되시고 절명하시었다. 그리고 그 독약을 타게 한 궁인이 행방불명이 되고 말았으니 아마도 왜놈이 궁인도 암살한 것으로 예측된다. 이 사실은 나의 형수가 고종황제 붕어 5일 후 운현궁에 갔다 돌아와서 부친(이회영)께 이 비밀을 말씀드려서 알게 되었다.<sup>17)</sup>

이태왕께서는 뇌일혈로 세상을 떠나신 것으로 되어 있지만, 그 진상은 독살이었다는 것이다. 이태왕께서는 그날 밤 대단히 상쾌하신 모습으로 측근자들과 옛이야기를 즐기고 계시었는데 밤이 이슬해서 다들 물러간 후 차를 한잔 드시고 침실로 돌아가시자 곧 절명하셨다는 것이다. ...이태왕님은...파리로 밀사를 보내실 계획을 세우시다가 일본 측에 감지된 것이다. 거둬지는 반항적 계획에 분노한 조선총독부에서는 시의(侍醫)인 안상호에게 독살할 것을 명령했다는 것이다(이방자 1960, 40-45, 황태연 2017b, 517에서 재인용).

《낙선재주변》<sup>18)</sup>에는...“순종이 덕수궁 부왕의 침전에 들어섰을 때 고종은 벌써 세상을 떠난 뒤로 흰 포목을 쓰고 고요히 누워 계셨다고 한다. 너무도 갑작스럽고 애처로운 일이었다. 돌아가시던 그날 밤에도 좋아하시던 식혜를 들고 잠자리에 드셨다는데, 시종들도 모두 물러나와 잠자리에 들 즈음이었다. 갑자기 갈증이 나셨는지 차를 가져오라고 해 드시고는 다시 자리에 드셨다고 한다. 잠시 후에 갑자기

---

있다.[http://db.history.go.kr/samil/home/manifesto/select\\_manifesto\\_detail.do](http://db.history.go.kr/samil/home/manifesto/select_manifesto_detail.do)(검색일: 2019.03.01.)

17) 이회영의 둘째 아들 이규창이 형수(조계진)로부터 들은 내용이다(이규창 2004, 30).

18) 대한제국기의 마지막 황후였던 윤비의 지밀상궁 김명길 상궁의 조선과 대한제국기의 황실 마지막 모습에 대한 수기를 동아일보사에서 출판한 책이다.

복통이 나셨는데 순간적인 일이었다. 아무도 어쩔 수 없는 일로 비운의 고종께서는 유언도 없이 곧 숨을 거두셨다. 일본 궁내성에서는 하루가 지난 23일야야 ‘뇌일혈로 승하하셨다’는 발표를 했다. 그런데 덕수궁의 시종들 사이에서 ‘고종이 돌아가신 것은 독살된 것’이라는 소문이 돌기 시작하더니 이 이상한 소문이 온 나라에 퍼졌다. 더욱이 입관하려고 엮을 할 때에 시체에서 살이 묻어나 이 의문은 한층 더 굳어졌다. 독약을 탄 사람으로 한상학, 안상호 등의 이름이 오르내렸으나 확인할 길이 없었다(근도 시로스케 2007, 293).”

황태연은 고종 독시를 아래와 같이 압축적으로 정리했다. 당연히 이를 지시한 것은 조선총독부였을 것이다.

현장 총지휘자: 당일 별입직 자작 이기용·이완용(李完鎔, 백작 李完用과 혼동 불가)  
현장 행동대장: 남작 한창수, 당일 숙직사무관 한상학  
독약처방자: 전의총탁 안상호  
현장 하수자: 성명미상의 지밀나인  
사용된 독약: 청산가리(시안화칼륨)  
시해목적: 고종의 파리밀사파견·북경망명기도 및 유사사건 재발 방지(황태연 2017b, 528)

백성은 일제에 의한 고종의 독시를 간파했던 것으로 보인다. 고종의 죽음을 애도하면서도 일본을 향한 격노가 표출되었다는 러시아자료는 1919년 3·1운동의 기폭제가 고종이었음을 확인해준다.

고종이 강제로 죽음에 이르게 되었다는 소문이 사람들 사이에 퍼졌고,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장례식은 서울에서 거행되었는데 많은 조선 사람들이 지방에서도 올라와 참여했기에, 그 숫자가 어마어마했습니다(참가한 사람의 수가 30만 명에 이른다고 합니다). 그래서 철도 관리국은 수도로 향하는 순례객 무리들을 더 이상 받아들이지 말라고 명령까지 받았습니다....전 황제의 죽음은 백성의

마음이 표출되는 계기가 되었고, 일본을 향한 진실된 격노가 표출되는 통로가 되었습니다.<sup>19)</sup>

윤치호의 기록도 이러한 사실을 확인해준다. “(3·1만세운동) 선동자들이, 윤덕영(尹德榮)과 한상학(韓相鶴)이 식산(食酸[식혜食醯의 오기])에 뒤편을 타서 태황제를 독살했다. 그리고 윤덕영·이완용·조중응·한상룡·신홍우가 한국 민들이 행복하고 일본의 통치에 만족하고 있다는 것을 증언하는 문서에 서명했다는 성명서들을 돌리고 있다(『尹致昊日記(七)』 1919년 3월 4일. 황태연 2017b, 514에서 재인용).” 박은식도 고종의 장례식을 다음과 같이 묘사하고 있다. “서울에 있는 남녀노소들이 모두 삼베옷을 입고 돛자리를 깔고서 하늘을 향해 울부짖으며 눈물을 흘렸다. 곡을 하는 사람이 산과 바다를 이루었으며, 7일 동안 끊이지 않았다. 각 지방의 인민들도 일제히 망곡하였으며, 많은 사람들은 서울로 올라와 분통해하며 곡을 하였고 혹은 순국하는 자도 있었다(박은식 2004, 162).” 청년 유생 김황도 “대한문 앞에는 엎드려 통곡하는 사람들로 첩첩산중을 이루고 있었다”고 적고 있다(『己未日記』 음력 1919년 2월 1일, 33. 서동일 2018, 56에서 재인용).

당시 “이것은 반드시 일인의 소위이다. 해어(海牙)<헤이그>의 전례가 발생하면 저희들의 행한 10년간의 학정이 폭로될까 두려워하여 어선(御膳)<임금의 음식>에 독을 넣은 것이다”라는 여론이 퍼져나갔다. 또한 당시 상황에 대해 33인의 민족대표였던 김병조(金秉祚)는 “흉음(凶音)이 사방으로 전하여 나가자 흥흥한 여론의 감정이 파도와 같아서 수십만 군중이 대궐 문 앞에 합성을 지르며 몰려들어 삼베로 옷을 입고 짚으로 자리를 깔고 엎드려 밤낮으로 호곡하며, 경향 각처

19) 「서울 주재 러시아 총영사 류트사가 도쿄 주재 러시아 대사 크루펜스키에게 보낸 보고서(1919년 3월 31일)」 (와닌 유리 바실리예비치 외 2016, 358).

의 상고(商賈)도 가게를 닫고 서로 조상하였다. 관·공·사립학교 모든 학생들도 남녀가 한가지로 스스로 학과를 파하고 머리 풀어 통곡하며, 거리를 전전하며 어머니와 아버지를 잃은 것과 똑같이 하기를 여러 달 계속하였다”고 전한다(김병조 1973, 35). 3월 1일 만세 군중들은 “덕수궁에 이르러 세 차례 국궁례(鞠躬禮)를 행하고 만세를 송호(嵩呼)하여 소리와 눈물을 함께 떨어뜨리니 전 성(城)이 파도 같이 홍용(洶湧)”(김병조 1973, 47)하였다 하니, 고종의 서거에 대한 슬픔은 곧 대한독립의 외침이었던 것이다.

이방자 여사는 “당시 서울에는 인산을 구경하려고 방방곡곡에서 유림들이 모여들어 백립을 쓴 사람들이 가득했고 남녀 학생들이 울부짖는 ‘대한독립만세’ 소리와 고종황제의 승하를 조상(弔喪)하는 울음소리가 어우러져 장안이 떠나가는 듯했다”<sup>20</sup>고 전하며, 이범석은 “경향각지의 선비와 남녀 백성들이 궐문 밖에서 능소까지 4-5십 리에 길게 이어졌고, 길가에서 엎드려 통곡하는 사람이 수백만 명이였다”고 적었다(李範錫 1919).

일본인의 눈에도 이는 마찬가지였다. “고쿠부 차관이 몇 번 경험한 정변을 돌이켜 생각해보고 나서 말하였다. 나는 몇 번 조선의 정변을 경험하였는데, 언제나 일본을 지지하는 자들이 있어서 배일(排日)의 공기가 아무리 짙다고 하더라도 반드시 친일을 표방하면서 나서는 인물이 있었다. 그런데 이번에는 단 한 사람도 독립론에 정면으로 반대하고 나서는 사람이 없다(곤도 시로스케 2007, 282-283).”

임시정부 창건은 3·1만세운동의 소산이었고, 3·1만세운동의 기폭제는 고종황제의 파리강화회의 밀사파견 기도와 북경망명 계획을 지지하려

20) “이방자 여사 회고록-세월이여 왕조여(7),” ‘고종 승하’, 『경향신문』 연재(1984년 5월 15일), 황태연, 2017b, 530에서 재인용.

는 일제에 의한 고종의 암살이었다. 따라서 카이로선언의 궁극적 연원은 고종의 부단한 독립투쟁과 그의 독시로 소급된다(황태연 2017b, 486).

고종의 치열한 항일인생은 3·1만세운동과 대한민국임시정부 수립으로 이어졌고, 대한민국임시정부를 중심으로 하는 독립군·광복군은 적의 중심을 목숨으로 공격하여 한국 국민과 중국 국민을 격동시켰고, 중국과의 연대를 가능하게 만들어 임시정부의 물적 토대를 공고히 하고 광복군을 결성할 수 있는 힘을 만들었으며, 궁극적으로 카이로선언에 대한민국의 독립이 적시되었다. 그래서 1940년 광복군총사령부는 선언문을 통해 “육탄이 아니면 독립을 이룰 수 없고, 붉은 피가 아니면 민족을 구할 수 없다(非肉彈無以致獨立, 非赤血無以救民族)”<sup>21)</sup>고 천명한 것이다.

## 5. 마치며 : 고종과 3·1운동, 그리고 상해임시정부

1904년 ‘한일의정서’ 강제 조인, 1905년 을사늑약, 1907년 고종 강제 퇴위와 한국군 해산이라는 국권 망실의 과정을 막으려고 고종은 각고의 노력을 다했다. 1907년부터 3여 년간 해산 국군과 의병이 연합한 국민군은 일제와 치열하게 전쟁을 전개했다. 그러나 나라의 독립을 지키지 못하고 1910년 병탄되었다. 병탄 이후에도 고종태황제의 독립을 위한 항일운동은 계속되었다. 대한독립의군부의 재건을 통해 항일조직을 재구축하고, 변화된 상황에 맞게 전략을 수정하여 비폭력 투쟁노

21) 韓國光復軍總司令部成立典禮委員會, 「敬告中華民國將士書」(대한민국 22 [1940]년 9월 17일). 『일제침략 하 한국36년사(12권)』, 국사편찬위원회 한국사데이터베이스

선으로 전환했다.

식민지 백성의 삶은 일제의 강탈과 억압으로 도탄에 빠져 들어갔다. 이런 상황에서 미국 윌슨 대통령의 민족자결주의라는 환경을 활용하여 파리강화회의에 밀사를 파견해서 국제사회에 일제의 폭압과 대한의 독립 필요성을 알리는 한편, 북경에 망명정부를 구성할 계획에 착수했다. 이런 정황을 알아챈 일제는 고종을 독시하여 문제의 근원을 해결하는 방법을 택했다. 백성은 고종의 죽음이 일제에 의한 독살임을 간파하고 죽음에 대한 슬픔을 독립만세운동으로 승화시켰다. 따라서 우리 헌법 전문이 밝히고 있듯, 대한민국은 "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법통"을 근간으로 하며, 3·1운동은 일제의 가혹한 식민통치에 대한 국민의 분노와 일제에 의한 고종의 독시에 대한 공분이 결합되어 일어난 것이므로, 대한민국 법통의 뿌리에는 백성과 고종의 부단한 독립투쟁이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고종을 독시한 이유가 파리강화회의의 밀사파견과 북경망명정부 계획을 저지하려는 것이었다는 점에서 확인할 수 있다. 동시에 거족적인 비폭력 저항운동 방식도 고종과 순종의 비밀황칙을 받은 임병찬의 정치전략서 「관견」에 의한 것이었다는 점에서 그 의미는 더욱 지대하다.

고종황제의 국권회복에 적극적으로 협력했던 험버트(Homer Hulbert)는 1942년 워싱턴에서 열린 한인자유대회에서 다음과 같은 연설을 했다.

역사에 기록될 가장 중요한 일을 증언하겠다. 고종 황제는 일본에 항복한 일이 결코 없다. 굴종하여 신성한 국체를 더럽힌 일도 없다. 흰적은 있으나 끝내 굴복하지 않았다. 생명의 위협을 무릅쓰고 미국의 협조를 구하였으나 성과가 없었다. 생명의 위협을 무릅쓰고 만국평화회의에 호소했으나 성과가 없었다. 생명의 위협을 무릅쓰고 유럽 열강에 호소문을 보냈으나 강제 퇴위 당하여 전달되지 못했다. 그는 고

립무원의 군주였다. 한민족 모두에게 고한다. 황제가 보이신 불멸의 충의를 간직하라(김동진 2010, 330-331).

우리는 3·1운동을 어떻게 이해하고 해석해야 할 것인가? 동시에 고종을 어떤 위치와 위상에 놓아야 할까? 3·1운동, 임시정부 100주년이 되는 이 시점에서, 후대에게 부여된 역사적 과제이다. 앞으로 시작될 100년의 미래를 어떻게 살아갈 것인지는 지난 100년을 만들었던 3·1운동과 임시정부에 대한 의미 해석에서부터 출발할 것이다. 여전히 고종을 망국으로 이끈 무능한 왕으로 볼 것인가? 아니면 파란 눈의 험버트가 연설한 일본에 항복한 일이 결코 없었고 생명을 무릅쓰고 일제와 싸웠던 불멸의 충의를 가진 왕으로 볼 것인가? 비폭력 저항운동을 통해 대한의 독립을 온몸으로 외쳤던 당대 백성들에게 국가는 어떤 의미였고, 그 국가를 살아갔던 시민사회의 국민들이 지키려고 했던 가치는 무엇이었나? 그것이 대한민국을 이해할 수 있는 중요한 화두일 것이다.

(접수 2019. 3. 19. 심사완료 2019. 5. 16. 게재확정 2019. 5. 17)

## 참고문헌

- 강길원. 2005. "돈헌 임병찬의 생애와 반일투쟁." 『전북사학』. 제28집. 27-62.
- 곤도 시로스케 지음, 이연숙 옮김. 2007. 『대한제국 황실비사』. 서울: 이마고 국사편찬위원회 편. 『韓民族獨立運動史資料集』 11권. 국사편찬위원회 한국사데이터베이스.
- 김동진. 2010. 『파란눈의 한국혼 헐버트』. 서울: 참좋은친구.
- 김명섭. 2008. 『자유를 위해 투쟁한 아나키스트』. 서울: 역사공간.
- 김병조. 1973. 「한국독립운동사략」. 독립운동편찬위원회 엮음. 『독립운동사 자료집(제6집): 3·1운동사 자료집』. 서울: 독립운동사편찬위원회.
- 김삼웅. 2014. 『이회영 평전』. 서울: 책보세.
- 김종수. 2014. "돈헌 임병찬의 생애와 복벽운동" 『전북사학』. 제44호. 129-160.
- 박맹수. 2012. 『개벽의 꿈: 동학농민혁명과 제국 일본』. 서울: 모시는사람들.
- 박은식 지음(1920), 김도형 옮김. 2004. 『한국독립운동지혈사』. 서울: 소명.
- 서동일. 2018. "김황의 일기에 나타난 유림의 3·1운동 경험과 독립운동 이해." 『한국독립운동사연구』. 제64집. 41-77.
- 안동독립운동기념관 기획, 류시중·박병원·김희곤 역주. 2010. 『국역 고등경찰 요사』. 서울: 선인.
- 와닌 유리 바실리에비치 외 엮음, 이영준 옮김. 2016. 『러시아 시선에 비친 근대 한국』. 성남: 한국학중앙연구원출판부.
- 윤소영. 2011. "한일언론자료를 통한 고종독살설 검토" 『한국민족운동사연구』. 66. 179-224.
- 윤소영. 2019. "고종 독살설과 3·1운동." 『내일을 여는 역사』. 통권74호. 46-61.
- 이관직. 1985. 『우당 이회영 실기』. 서울: 을유문화사.
- 이규창. 2004. 『운명의 여진』. 서울: 클레버.
- 이방자 저, 방기환 역. 1960. 『재일 영친왕비의 수기』. 서울: 신태양사출판국.

- 李範錫. 1919. “經亂錄”. 『동학농민혁명자료총서』. 국사편찬위원회 한국사데이터베이스.
- 李相燦. 1990. “大韓獨立義軍府에 대하여.” 『李載堧博士還曆紀念 韓國史學論叢』. 서울.
- 이성우. 2014. “1910년대 독립의군부의 조직화 활동.” 『역사학보』. 제224집. 163-195.
- 李昇燁. 2009. “李太王(高宗)毒殺說の檢討.” 『二十世紀研究』. 10.
- 이정은. 1990. “《매일신보》에 나타난 3·1운동 직전의 사회상황.” 『한국독립운동사연구』. 제4집. 193-220.
- 이태진. 2009. “고종황제의 독살과 일본정부 수뇌부.” 『역사학보』. 제204집. 431-457.
- 이현희. 1979. “목암비망록을 통해 본 3·1운동의 내막.” 『월간중앙』. 3월호.
- 이현희. 2009. “의암 손병희와 3·1운동.” 『동학학보』. 제17호. 289-324.
- 임기선. 2015. 『숨어 있는 한국 현대사(1)』. 서울: 인문서원.
- 임병찬. 1986. 『의병항쟁일기』. 마산·서울: 한국인문과학원.
- 임형진. 2009. “목암 이종일과 3·1운동.” 『민족학연구』. 8권. 173-191.
- 정혜정. 2018. “3·1운동과 국가문명의 교(敎): 천도교(동학)를 중심으로.” 『한국교육사학』. 40권 4호. 239-264.
- 조선헌병대 사령부·조선총독부 경무총감부. 1973. “조선 3·1 독립 소요 사건: 개항·사상 및 운동.” 독립운동편찬위원회 엮음. 『독립운동사자료집(제6집): 3·1운동사 자료집』. 서울: 독립운동사편찬위원회.
- 韓國光復軍總司令部成立典禮委員會. 1940. 「敬告中華民國將士書」(대한민국 22[1940]년 9월 17일). 『일제침략 하 한국36년사(12권)』. 국사편찬위원회 한국사데이터베이스.
- 황태연. 2016. 『패치워크 문명의 이론』. 파주: 청계.
- 황태연. 2017a. 『백성의 나라 대한제국』. 파주: 청계.
- 황태연. 2017b. 『갑진왜란과 국민전쟁』. 파주: 청계.
- 황태연. 2018. 『한국 근대화의 정치사상』. 파주: 청계.

「매일신보」 . 1917년 5월 29일. 1917년 7월 19일. 1918년 8월 15일. 1919년 1월 30일.

「Allgemeine Zeitung」 . 25. Juli 1907.

「연합뉴스」 . 2019년 3월 14일.

국사편찬위원회 삼일운동 데이터베이스.

[http://db.history.go.kr/samil/home/manifesto/select\\_manifesto\\_detail.do](http://db.history.go.kr/samil/home/manifesto/select_manifesto_detail.do)(검색일: 2019.03.01.)

Anti-Japanese War of the State and Civil Society  
- Focusing on the reinterpretation of the 3·1 movement  
through 'patchwork history approach'

*Kim Jong-wook*

The purpose of this article is to analyze the causes of the 3·1 movement and to define that this movement was possible in the history of Anti-Japanese War of civil society(people) and nation(Kojong). The direct cause of the 3·1 movement was the poisoning of Kojong that occurred in the environment of the global influx of National self-determinationism. The reason why Japan was poisoning Kojong is that it dispatched a courier to the Paris Peace Conference and prepared for asylum government in Beijing. In order to confirm this argument, a review of the 'Dokripeuikumbu' and the 『gwangyeon(管見)』, which was the foundation of the nonviolent resistance movement, the review of the Cheon'do-gyo, which became the central network of the 3·1 movement, and reviewing the poison of Kojong by the Japanese imperialists and people's desire for independence. In 1919, the 3·1 movement began with the establishment of the 'Dokripeuikumbu' as a medium and long-term preparation of Kojong to prepare for the independence of Korea, during this process, Kojong was poisoned by the Japanese imperialists in preparation for the independence of Korea, dispatching a courier to the Paris Contingency Conference and establishing an asylum government. The people, who were united by it, developed nonviolent resistance against the Japanese imperialism. It is based on three million networks of Donghak.

**keyword** : 3·1 Movement, poison, Paris Peace Conference,  
'Dokripeuikumbu', gwangyeon(管見), Cheon'do-gyo